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편지 통해 사랑 교감, 스스로 교회오게

이슬비 전도훈련, 전 교인에게 실시

8월 24일 새벽부터 ~27일 저녁까지

제44기 이슬비 전도학교 이동과정, 본 교회당에서

교회는 93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10월 17일(주일)로 정하고 이를 대비한 전도훈련을 전 교인을 대상으로 8월24일 새벽부터 27일 저녁까지 열기로 했다. 기간중 매일 오전 5시 40분에 시작해서 40분 강의로 2시간(오전 7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 50분까지 3시간 등 총 20여 시간을 실시할 이 전도훈련은 이슬비 전도학교(교장 여운학 장로, 성일교회 시무)에 위탁해서 실시된다.

기존의 전도방식을 과감히 탈피,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이 이슬비전도는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훈훈한 사랑의 교감을 나눈 뒤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장기문서 전도 프로그램이다. 일명 『옥토화작전』이라고도 불린다.

『종합선교 규정』의 대표인 여운학 장로가 처음 개발, 보급하기 시작한 이 전도방식은 높은 전도효과에 힘입어 90년 이슬비 전도학교까지 개설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동안 이 학교에서 약 4천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전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던 것은 전도대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접착점이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외친 복음이 과연 얼마만큼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미지수이기도 했거니와 친분관계가 아니고는 전도 사후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슬비 전도는 대상자의 심리이

해를 기본 바탕으로 자연스레 접근, 주소를 확인한 뒤 매주일 편지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도접촉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상대방과 계속적인 연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 이슬비 전도의 이론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전도대상자를 차근차근 공략, 복음이 심기될 수 있는 마음밭을 가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전도대상자에게 성별과 나이, 직업별로 이미 개발된 41종의 '이슬비 전도편지' 나

시간	24(화)	25(수)	26(목)	27(금)
1교시 05:40-06:20	서신전도의 성경적배경 (여현구 목사)	이슬비 전도편지와 사랑의 편지활용1 (여현구 목사)	모델교회 전도간증 (최민옥 집사) (정규27/평산교회)	전도실습 예비교육 (여운학 장로)
2교시 06:20-07:00	공단지역 및 중소도시 전도간증 (조승희 목사)	이슬비 전도편지와 사랑의 편지 활용2 (여현구 목사)	새신자 양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재활용 (여현구 목사)	20분 제목기도와 찬양
18:00-18:50	찬양과 기도			축조전도 및 노방전도 실습 (수강생 전원)
3교시 19:00-19:30	개강예배 (설교: 신성종 목사)	모델교회 전도간증 신창섭 목사 (평산교회)	교역자를 위한 특강 (여운학 장로)	조별 전도실습 평가 종합평가
4교시 19:40-20:40	여리고 작전과 이슬비전도 전략 (여운학 장로)	불신남편의 심리이해와 인도전략 (여운학 장로)	새신자의 심리이해와 성장을 위한 도움 (여운학 장로)	교육 평가시간
5교시 20:50-21:50	전도대상자의 심리 이해와 접근방법 (여운학 장로)	태신자를 위한 기도와 상담훈련 (여운학 장로)	옥토화작전 및 총독습 (여운학 장로)	파송예배 및 수료증 수여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김창인 원로목사

- 9월, 10월 여름 산상 대성회 설교 (충현기도원)
- 11월 전국 초급 교육자 세미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 14일 8.15해방 48주년기념 순교자 추모예배 설교(여전도회관)

『사랑의 편지』 중 가장 알맞은 것을 선정, 매주일 발송함으로써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교회출석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핵심전략이다.

그동안 이 전도방법을 사용, 교회부흥을 이루거나 전도운동 촉진의 계기를 일으킨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 이슬비 전도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10월의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온 교인이 참석해야 한다. 제직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훈련기간중 직장인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식사는 제공하기로 했다.

교회는 전 교인이 이에 참석을 위해 이 기간중 지회의 모든 행사는 전도훈련 뒤로 연기토록 했다. 참가자에게는 교재를 무료로 지급한다.

청년부에 전임 교역자

교회는 청년부가 통합됨에 따라 전임교역자가 절실하게 요청되어 현상임 목사(만 33세)를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현 목사는 총신대 음악교육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 공군 군목으로 임관(대위)하여 근무하던 중 지난 7월 31일자로 예편했다. 한편 현 목사는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수리남 선교사/안석렬 목사

어디에서나 똑같은 주님의 일



수리남의 안석렬 선교사가 안식년 휴가를 얻어 귀국했다. 파라과이에서 3년, 수리남에서 3년간 선교사로 활동한 안석렬 선교사를 잠시 만나보았다.

▷ 선교사로 나가신 것은 언제였나요?

▶ 1987년 3월6일 파라과이로 갔고, 거기서 90년 3월 수리남으로 갔습니다. 수리남이라면 대부분이 모르던데 브라질 위쪽에 조그만 세 나라가 나란히 붙어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요?

▶ 파라과이에서 수리남으로 갈때 이미 그곳에 한인교회가 있었고 그곳 목회자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인위주의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원주민과 한인들을 모두 대상으로

민 성인을 위한 예배와 주일학교, 한인을 위한 예배와 주일학교 등으로 해서 4번 예배시간이 있습니다. 원주민을 위해서는 수리남의 공용어인 화란어로 설교하고 교육합니다. 현재 김창수 목사는 영어로 설교하고 교인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화란어로 통역을 하지요.

선교사의 하는 일도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의 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목회지요, 그래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활동보다 원주민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우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수리남에 대해서, 또 앞으로 수리남의 선교의 전망은?

▶ 수리남은 인구 40만인 조그마한 나라인데 여러 종족이 함께 어우러져 삽니다. 인디언, 흑인, 중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유대인, 레바논인, 유럽인 등이 있고 각 족속마다 고유어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활동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어디서나 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중심의 목회적 사역입니다. 주일에는 원주

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확신하여 성장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어려운 점이나 부탁할 점은?

▶ 교회, 교단, 선교사 간의 기본적인 행정적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지원 및 정책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살다보니 역시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내년 7월 중순까지 안식년 휴가이다. 이번에 귀국할 때는 이성욱 사모와 아들 요한(7세)이가 같이 왔고, 미국의 큰 형님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 소영(13세), 위영(12세)이가 합류해서 온 가족이 참으로 오랫동안 고국에서 보내게 됐다. 8월 말이면 두 딸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 까마잡잡한 얼굴이 마치 현지인이 된듯한 인상을 주는 안 선교사 가족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또 힘차게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안식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제2목양관 203호(전화 567-3851)에 거주하고 있다. <형>

오 늘 본문 말씀을 흔히 '어린이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천국시민의 자격은 과연 무엇인가? 또 천국시민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은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모이면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는 자들. 여기 실족케 한다는 말은 원문에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스캔달(scanda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본래의 단어는 남을 넘어지게 하고 거리끼게 하고 거침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소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함정에 빠뜨리

충현강단



소자들에 대한 사랑 (마 18:1-14)

1. 천국 시민의 자격

본문 3절에는 천국시민의 자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시민의 자격, 즉 우리들이 천국에 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대인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어린이와 같다는 말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의 특징을 사람들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을 바로 어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장부의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린이처럼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천국시민으로서 우리의 자격이 무어냐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이들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나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없이 자기들이 존재할 수도 없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두 번째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은 절대로 자기의 살아온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하는 것을 어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편견대로 보는 것입니다. 설교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의 안경으로 봅니다. 그것이 어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의 단순함, 그 단순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결단코'라는 말입니다. 예외없이, 절대로 못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우'라고 하는 단어와 '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영어로 말하면 'no not'이란 뜻입니다. 이중 부정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4절은 3절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점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의 도입입니다.

2. 실족케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족케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을 실족케

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뱃들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흔히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돌을 하나씩 던집니다. 그래서 돌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사람들의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자뱃들을 이용한 사형법입니다. 부모를 죽였다든지 혹은 사회의 도덕을 문란케 하는 사람들은 연자뱃들을 목에 매어 물에 수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넘어뜨리는 자, 실족케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보면 어린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나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 와서는 소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자들이란 이 단어는 나이만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소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장애자이기 때문에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가난해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소자입니다.

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나이는 비록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타락한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술주정을 하면서 자녀에게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 부모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수호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함받은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는 더욱 지켜주고 있습니다.

3. 길 잃은 양의 비유

11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 유명한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유명한 길 잃은 양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회 철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참된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그 한 마리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한 마리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심정은 물론 목회자들이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만이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정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목회자입니다. 작은 목회자입니다. 새신자를 인도했습니까?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돌봐주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면 미운 사람도 기도할 때는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소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실족함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소자들을 실족케 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고 어린이와 같은 믿음, 소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잃어버린 양을 위해 생명바치신 선한 목자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끝까지 사랑과 봉사로 돌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인간

글

베이컨(Bacon, Francis(1561-1625))은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묶고, 그 래도 안되면 격리시켜야 할 사람들이다. 다음은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였다. 내가 벌었으니 나만을 위해 써야 겠다고 생각하는 출부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협동이 무엇이며,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 내가 벌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누어 갖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 모두가 꿀벌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글 / 신성종 목사

교회설립 40주년 기념대회

10월 17일 '93 예수사랑 큰잔치

이슬비전도훈련 통한 전도집중점으로 교회인도

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오는 10월17일 주일에 실시기로 결정하고 모든 계획과 조직을 확정짓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금년도 목표는 전교인 초청대상자(태신자) 3명 이상 갖기, 새신자를 중심으로 한 교구배가, 청장년 집회를 통한 결신자 10,000명 배출, 교회학교 배가성장, 연 동원 50,000명(결신자 10,000명, 입교인 5,000명)이다.

이런 목표하에 모든 계획을 추진중인데 기간중 이슬비전도훈련, 교역자, 장로 특별 교육, 심령부흥회, 총동원 새벽기도회 등을 실시하여 1993년 하반기는 온 교회가 예수사랑 큰잔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93 예수사랑 큰잔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목표

- 1)전 교인 초청 대상자(태신자) 갖기 3명 이상
- 2)새 신자를 중심으로 교구 배가
- 3)청장년 집회를 통한 결신자 10,000명 배출
- 4)교회학교 배가성장
- 5)연 동원 50,000명, 결신자 10,000명, 입교인 5,000명

2.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3. 주제찬송

빛의 사자들이여(찬 259장)

4. 행동구호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 일꾼'

5. 잔치날

1993년 10월 17일(주일)

6. 잔치날 예배시간

5시(새벽 기도회),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찬양예배)

7. 잔치날 감사인

김창인 목사, 신성종 목사

8. 기간중 중요행사

- 1)잃은 양 찾기 운동전개(각 교구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

기간중 금요집회시 연예인의 찬양과 간

증/ 당회장의 초청 메시지

2)전교인 전도 세미나

일시 / 8월24일(화)~27일(금)

장사 / 여운학 장로

3)24시간 연속 기도회 실시

일시 / 9월1~23일(각 교구가 하루를 담당한다)

장소 / 24시간 연속 기도실

4)교역자 전도실시

일시 / 9월 첫주 부터 방법 : 교구내에서 1주에 1가정씩 전도

5)교역자 장로 특별 교육 실시

일시 / 10월4~5일

장소 / 당회실

분과명	분과장	지도	장	로	교역자
기 획	손동운	임성환	분과장 윤명식 서동석 이종국		분과지도 정광옥
예 배	김방진	윤용규	이태규 정하우 정운석 김여순 박인건		이홍성 한용환 이인우
찬 양	이병학	김찬곤	이 훈 남선우 박용삼 김천재 차신득		장경철 박정규
			이종석 이관섭 최상규		
교 육	김은호	이조용	김중구 최무길 김재명 강 협		최인근 김희수
양 육	강은원	김용기	강순용 하대선 윤인현 최대원 박승준		김수상 한정남 김정자
청 년	손경수	성봉환	오태희 김차생 노광현 오진국 박관영		장우천 윤삼중
교 학	송기홍	홍창민	박인세 정광호 최성현 김재관 윤광일		이병각 이종대 정연해
			이창호 박영식 김광남 윤성철		장상기
동 원	우기전	김성운	교구장		교구 지도 부지도
봉 사	박치민	조동원	마성락 김경철 오정원 문홍구 이하영		유창우 조윤재
홍 보	김의철	김양환	조선근 임필성 강모용 조인재		김광국 장봉생
제 정	김영개		서일영 안익태 송환장 김영길 임봉남		

장사 /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당회장)

제목 / 새 신자 양육에 대해서

6)교회학교 예수사랑 큰잔치

일시 / 10월10일(주일)

7)심령부흥회

일시 / 10월11일~15일(월-금)

장사 /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사장 수원 침례교회 당회장)

8)총동원 새벽기도회

일시 / 10월11일~16일(월-토)

9)성찬식

일시 / 10월15일(금) 새벽기도회

9. 조직 및 관장업무

40주년 기념대회 명예 대회장 김창인 목사

대 회 장 신성종 목사

준비위원장 오태희 장로

부 위 원 장 김성운 목사

간 사 서동석 장로

실 무 간 사 윤명식, 오진국, 이종국 장로

예수사랑 큰잔치 추진위원장 손동운 장로

부 위 원 장 임성환 목사

• 분과별 업무개요

기획 / 기본계획 수립 / 행정업무 조정 / 예

산 심의 / 조직인사

예배 / 새벽기도회 및 대 예배 순서 작성과

진행 / 인원 파악 / 시설관리

찬양 / 예배 및 집회시 육내외 찬양

교육 / 기존 및 신입 구역장 교육

양육 / 새신자(태신자) 양육 / 전도 메시지

및 전도 책자 제작 / 결신자 처리

청년 / 청년동원 / 결신자 처리

교학 / 교회학교 예수사랑 큰 잔치 주관 / 교

회학교 배가운동 달성

동원 / 새신자 관리 / 교인 동원 관리

봉사 / 차량관리 / 의료봉사 / 간식 보급 /

강사 접대 / 안내 / 유인물 배포 / 환경미화

홍보 / 대내외 홍보활동 / (신문, 방송, 안내문

등) / 포스터 및 유인물 제작 / 기록물

재정 / 전체 예산 편성 및 집행

7월3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달려온 시카고는 후덥지근하다. 도로변 전광판에는 현재 온도가 35도로 나타나 있다. 맨하탄을 연상시키는 빌딩 숲 앞으로 시원한 바다가 보인다. 많은 보트들이 정박해 있는 이곳은 실은 바다가 아니고 5대 호의 하나인 미시간호란다. 호수의 면적이 남한보다 좀 더 넓다고 하니 차라리 바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독립기념일 연휴라서 그런지 가족단위로 놀러 나온 사람들이 많다. 미시간호가 출렁이는 잔디밭에서 우린 다시 찬양을 드렸다. 새이슬을 타던 젊은이가 자신도 찬양대리며 함께 찬송을 부른다.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주님을 찬송함으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안으로 일본을 여행할 예정이었다며 꼭 한국에 들라서 충현교회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7월 4일, 107년 되었다는 무대성경학교에서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무대방송까지 가지고 있는 무대교회는 미국내에서도 알려진 보수적인 교회로 교역장인한 건물에서부터 무대선생님의 스타일을 느낄 수가 있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중에 특별히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마침 오늘은 무대교회의 성전축날이다. 성전축 방법도 우리와 똑 같았다. 다만 떡 대신에 건빵같은 크래케 조각이었다. 우리는 예배찬송을 맡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자 교인들은 '퍼펙트, 액셀러트...'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청진에 후한 그네들의 풍습을 다



미주선교찬양여행을 다녀와서(3)

무디교회와 수정교회에서

800여 관객들의 기립박수

원 용 숙

(집사, 아멘찬양대원)

시 한번 실감한다. 너무도 겸소하고 실용적인 교회의 모습에 옷깃이 여며진다. 오르진 위에 놓인 빨간정미 한 송이가 인상적이었다. 규율과 절제, 겸소가 몸에 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호사인 것 같았다. 저녁 연주회, 독립기념일 연휴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리허설 시작전부터 교인들이 몰려 들었다. 동양권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찬양연주를 한다니 가슴이 벅차온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첫곡부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자 800여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관객중에는 한국인들도 100여명 눈에 띄었다. 단원들의 친척들도 있었지만 충현성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차를 몰고 달려온 사람들도 많았다. 아직 출생한지 한달도 안된 갓난아이를 안고 1시간 차를 몰아 달려왔다는 젊은 부부는 우리의 찬양에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해한다. 외국인들은 인사를 나누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배우질 않으며 우리의 찬양은 이곳

무디교회에 영원히 살아 있을것이라고 했다. 교회측에서는 우리를 위해 마당에서 아이스크림 파티를 열어 주었다. 많은 관객들이 가지않고 전부 참석해서 공연의 여운을 함께했다. 미주관 한국일보, 조선일보에서 취재를 나왔다. 이번 공연은 KBS와 시카고 한인기독교방송국을 통해서 특집으로 시카고 전역에 방송한다.

공연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매일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긴다.

7월 7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L.A에 도착한 우리들은 크리스탈교회의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AFKN을 통해 예배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 교회는 로버트 슬러 박사가 당회장이었다. 온통 유리로 지어진 교회는 벽 4면에 파이프오르간의 파이프가 있었다. 세계 최정상급의 파이프오르간에 하나인 HAZEL WRIGHT 오르간은 257 스탭, 281 랭크, 16241 파이프로 5단전반이 2대로 되어있어 그 소리가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교회안에는 12계자를 상징하

는 12개의 분수가 있었다. 1980년에 완공되었다는 이 교회는 무디교회와는 다른 현대건축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압도한다. L.A에서 40분정도 걸리는 오랜 저카운티인데도 불구하고 300여 한인들이 모였다. 이번 찬양여행의 마지막 원주, 우린 열심히 불렀다. 미국의 이곳 저곳에 있던 충현의 식구들이 하나씩 들쭉 나왔다. 충현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다 이곳으로 이주했다는 14.12세의 형제는 자기들끼리만 왔다고 총총히 돌아간다. 여성성가대에서 반주를 했던 김은백 선생님과 가족들과 함께 6시간씩이나 차를 몰아 달려왔다. 원주가 끝나고나자 박은 완전히 어두웠다.

7월 9일,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 그동안 전해진 대원들끼리 간증을 나눈다. 그전에 여행할 때는 그저 좋다. 아뭏다라는 느낌 뿐이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오묘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부족한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대 감사할 뿐이라고...

7월 10일, 일본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김포에 도착했다. 입국수속을 하는 사이 잘 잔뜩 열리는 문틈으로 마중 나온 가족들의 그리는 얼굴들이 보인다. 13박 14일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해주신 하나님께 우린 외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막소식

- ◆ 교회는 연초에 계획했던 93년도 바자회를 교회 사장에 의해 취소하기로 했다.
- ◆ 교회는 서초경찰서에 예배실을 마련하여 기독교청년회 신우회 예배를 돕기 위해 청원된 사항을 접수하고 '강단'을 설치해 주었다.
- ◆ 권사회는 오는 8월 23, 24일 양일간 교회당(갈릴리움)에서 권사회 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강사는 김창인 목사, 신성종 목사, 이두란 전도사와 이진숙 사모이다.
- ◆ 안수집사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회 안수집사회 수련회를 해금강에서 갖기로 했다. 강사는 윤용규 목사
- ◆ 가브리엘찬양대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찬양연습을 위해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모인다. 8월 세계주부터는 화요일에도 모인다. 또 자체내 암송대회가 9월 10일(금) 열린다. 성경 암송 범위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5장 중에서 선택한다.
- ◆ 아멘찬양대는 8월 14일(토) 양재시민 공원 숲에서 전대원 수련회 겸 단합대회를 갖는다.
- ◆ 크로마하프 및 만들어진 연주대에서는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희망자는 12일(목) 오전 10~12시에 나사렛홀로 오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하기 바란다.
- ◆ 초등1부는 오늘 분반공부시간에 글짓기 대회를 한다. 내용은 '성경학교 때에 있었던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일'이다.
- ◆ 초등3부는 오늘 15일 연구수업을 실시한다. 담당은 4과 43반의 이인수 선생이다.
- ◆ 중등1부는 8월 한달을 대심방 기간으로 정하고 교사들이 심방에 나선다. 특히 장기결석자에게 이슬비전도편지 및 전화심방과 아울러 직접 심방할 계획이다.
- ◆ 중등3부는 매주일 오후 1시 교육관 507호에서 영어성경 공부로 모인다.
- ◆ 고등부는 8월 15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대입수험생들을 위한 예배로 드린다.
- ◆ 대학부는 9월 12일 예수사랑 가을잔치를 실시키로하고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여 전도한다.
- ◆ 청년부는 지난 주일 새로운 임원진과 조장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여명의 임원과 40여명의 조장이 선임되었고 새로 오는 현상민 목사를 맞아 더욱 활발한 청년부를 기대하고 있다.
- ◆ 에바다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도지를 제작한다. 한편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일반 수학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9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주간반도 개설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8월 9일(월), 10일(화) 여름 산상대성회 설교(충현기도원), 11일(수) 전국 초급교육자 세미나(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14일(토) 8.15해방 48주년 기념 순교자 추모예배 설교(여전도회관)
2.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농어촌 전도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4. 장년2부 수련회(8월 13, 14일)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5. 대입 수학능력평가시험(8월 20일)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소서.
6. 여름산상대성회가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소서.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맞으며

어떠한 이유와 불평도 성립될 수 없다

임 성 환

(목사, 전도위원회, 23교구, 사랑부 지도)



93 예수사랑 큰잔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죄있는 사람이 이리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교회로 오라.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날, 예수님의 보배 피를 자랑하는 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외칠 날, 참으로 신나는 날입니다.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날 '예수사랑 큰 잔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사랑 큰 잔치란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동원이란 말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날은 그동안 충현의 사랑 동산에서 어우러져 자라다가 흩어진 믿음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과 일가 친척도 다함께 와서 한자리하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여기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평생에 예수 '예'자도 모르고 기독교에 회의적이던 자, 비판만 하던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열매결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거나 다닌 경험은 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어깨를 축 늘어 뜨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을대를 밀어올리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모름지기 이날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초청장 보내놓고 오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면 잔

치를 벌이는 주일이 아닙니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치르는 잔치가 아닙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힘을 모으고 집중하여서 목표를 달성하고야마는 기가막힌 날입니다. 사실 이 목표는 매우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너무나 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짐입니다.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93년 일년을 이 일을 위하여 몇 달 전부터, 혹은 아주 오랜 동안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교구와 구역의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공동작업입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손톱 만큼도 회생못하던 내가 어찌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정과 시간과 인력과 힘을 쏟으며 희생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또 영혼구원을 위한 해산의 진통을 체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통을 겪는 만큼 또 한 해산의 기쁨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사랑 큰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전도와 영혼구원의 책임을 뒤로하고 깊이 잠자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워서 성도의 본연의 자세와 의미를 찾게되는 유익이 있으며 본인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정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무관

심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최대한 활동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은 총동원 주일에 대한 거부감도 역시 강함을 봅니다. '국수라도 삶았소?' 하며 빈정대는 이름은 교인이지만 불신자도 있습니다. 한번만 많이 모이는 그런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구요? 하나님은 당신이 안하셔도 돌들을 들어서 일

꾼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복음의 운동에는 순종해야 하지 않을 까요? 양적인 성장은 관심없다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똑똑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세는 잘못입니다. 주님은 회여져 넘어지는 추수밭을 좀 보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20세기 후반에 난데없이 무슨 총동원이라고 말하며 백배는 일에 은사 있는 우수한 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라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고 불신자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하며 말할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지 100년. 한 알의 밀알이 이제는 천만의 교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축복은 여러 가지 전도운동의 결과임을 아는 자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우리가 아직 젊은 믿음의 소유자라면 교회의 수준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93 예수사랑 큰잔치'의 총동원 운동, 예수운동, 천국운동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0년전 갈릴리를 섰던 하나 신고 다니시며 믿음의 길을 따르라 전도하시던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방법상의 문제라면 한 발자국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분방한 비판보다는 먼저 동참하는 적극적이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단이 아닌한에는 적극적인 협력과 동역자 의식으로 함께 동참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분명 복음을 확장시키는 한 전도 방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93 예수사랑 큰잔치 출발신호는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정신없이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며 달려보려 합니다. 또 본래 편지라고는 쓰지않던 나이지만 이번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진지한 편지 10통은 써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아기 같이 겁 많고 수줍고 조심스럽기만 한듯한 조용한 분들도 전도한 후에 '내가 전도를 다하다니' 감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 전도가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예수를 자랑하는 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병어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사랑 큰잔치에 방관자들이 아니라 함께 손건어 붙이고 적극 협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아끼거나 자기의 이익을 꾀해본 일이 없으신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짐은 가벼운 짐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는 안됩니다. 깊은 곳에 활화산 같은 복음의 정열과 저력을 가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전해봅시다. 그리고 구름떼 같이 모이는 꿈을 기도회 때마다 꿈시다. 총력을 다해 모여봅시다. 서울을 품고 있는 충현교회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단들은 우리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전도하고 자기할 말 다 하는 이 영적인 깊은 혼란기의 오늘 밤에도 역삼동 높은 언덕 충현교회의 네온 십자가에 비추는 불빛은 매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할 수는 없는가 묻고 있으며,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탄식이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달려 나오라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라 죄인들의 친구되시기를 주지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다." 임마누엘!